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# 미 경기회복 둔화, 불안감 고조

- 지난 11일 미 연준은 경기회복 둔화세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하였으며, 발표 후 주식시장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크게 하락함.
  - 연준이 대출금리 안정을 위해 만기도래 모기지담보증권(MBS)을 국채에 재투자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은 잠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나, 이내 연준의 부정적인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로 급락함.
  - 지난 수요일 미국 S&P 500지수는 2.8% 하락하였으며 영국 FTSE100지수는 2.4%, 일본 Nikkei 지수는 2.7% 하락함.
- 투자자들은 개별기업의 수익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.
  - Harris 은행의 한 임원은 미국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주식시장은 참담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원하고 있다고 밝힘.
  - 비관론자들은 연준의 발표가 경기회복의 급속한 둔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, 긍정론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단지 경기회복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기후퇴에 불과하다고 주장함.
- 연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출구전략 시기를 저울질하던 투자자들의 시각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지지로 선회함.
  - 투자은행 RBS(Royal Bank of Scotland)의 관계자는 경기가 추가 하락할 경우 시장은 연준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, 대규모의 신속한 조치에 대한 반대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주장함.
  - 노무라 증권은 관계자는 연준의 이번 조치가 연준이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준은 향후 추가적인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.

(Financial Times, 8/11)